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의 흐름을 미리 붙잡고 마음을 정돈해 봅시다. 2026년 10월 둘째 주(10월 11일) 주일 오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께로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래 기도문들은 찬양 예배의 진행에 맞춰 '감사-회개-간구-파송'의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인도자는 회중의 상황에 맞게 문장을 다듬어 사용하셔도 좋고, 기도 중간중간 짧은 침묵을 두어 성도들이 마음으로 아멘 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할수록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준비합시다.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 감사의 문을 열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6)

서론

주님, 한 주의 분주함과 흔들림을 내려놓고 이 오후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먼저 열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굽혀지게 하시고, 예배가 '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본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지 노래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다시 정렬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 때도, 지칠 때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허전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다시 새롭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공기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며,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섬기는 찬양팀과 안내, 방송,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일치함을 주시고, 회중이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온 이들도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옵소서. 결론

---

주님, 오늘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알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찬양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오후,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예배의 문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찬양 중에 마음이 흠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작은 아멘들이 모여 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2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서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종종 예배를 익숙하게 대하며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곤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찬양과 말씀 사이마다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게 하옵소서. 본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무심코 품었던 미움과 판단, 입술로 흘려보낸 거친 말들, 끊어내지 못한 습관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 찬양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만져 주옵소서. 눈물로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괜찮다’고 눌러두었던 마음을 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숨 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용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이 두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취향을 넘어,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결론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벼운 감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 드린 고백이 월요일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주시고, 순종이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 교회와 다음세대를 품으며

“내가 주의 행사를 만민에게 전파하리이다.” (시편 9:1)

서론

주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다음세대가 믿음을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만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본론

주님,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상처가 쌓여 멀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화해의 문을 열어 주시고, 작은 말 한마디로도 서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경쟁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친구 관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멘토와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막혔다면 다시 대화의 길을 열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혼자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공동체의 따뜻한 손길을 더해 주시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사들, 구역과 소그룹 리더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인정받기  
위험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결론

-----  
주님,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해지기보다 더 거룩하고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이 공동체를 다시 묶는  
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4 열방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서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과 이웃을 기억하며 교회가 중보의 자리에서 깨어 있게  
하옵소서. 본론

주님, 전쟁과 갈등, 재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 없는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소망이 절망을 뚫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벽, 외로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작은 씨앗 같은 사역이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아픈 자리들을 기억합니다.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이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취업과 생계로 무너진 마음을 안고 있는 이들, 이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말로만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공직자들, 각 영역의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옵소서. 분열을  
부추기는 말보다 서로를 살리는 길을 택하게 하시고,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다투기보다 빛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결론

-----  
주님, 우리의 눈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받은 은혜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중보가 주님의 큰  
일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5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서론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안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웃으며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상처를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시작을 허락해 주옵소서. 본론

주님, 낙심한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숨 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한 문장이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스스로를 정죄하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게 하옵소서. 비교의 함정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길어지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의료진과 적절한 치료를 만나게 하옵소서. 가족 간병으로 지친 이들에게도 쉼과 도움을 허락하시며,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부부, 오해가 쌓인 가족, 멀어진 친구 관계에 주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먼저 손 내밀 용기, 먼저 사과할 겸손, 다시 신뢰할 지혜를 주시고,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이 두려운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방향을 잃은 고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작은 빛 하나라도 주님이 보여 주실 때 순종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론

주님,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회복의 길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고, 결국 찬양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 10월 둘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6 파송과 헌신으로 나아가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1)

서론

주님, 예배의 감격을 예배당 안에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드린 고백이 이번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이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본론

주님, 오늘 예배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셨으니 이제 보내시는 자리로 순종해 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한 번 더 사랑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이 눈에 띄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 하나도 주님 앞에서 귀한 예물임을 믿게 하옵소서. 새롭게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기쁨을 주옵소서. 헌금과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계산과 두려움이 앞서기보다,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넉넉한 성도들은 더 넉넉히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이 우리를 다시 길로 내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결론

주님,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주님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깊이 찬양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함께 시청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면, 주일의 은혜가 한 주 내내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